

문화공연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특성 분석

이주석^{1*}, 곽승준², 조승국³

¹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²고려대학교 경제학과, ³한세대학교 경영학부

The analysis of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demanders for cultural performance

Joo-Suk Lee^{1*}, Seung-Jun Kwak², Seung-Kuk Cho³

¹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³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일대일 개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공연관람 및 공연관람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수요를 분석할 경우 공연관람 경험이 없거나 공연관람 지출이 전혀 없는 다수의 응답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wo-equation 모형과 Tobit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문화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이며 일정연령(peak age)가 지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demanders for cultural performance. To take into account zero responses (no expenditure or no experience for cultural performance, this paper employed a two-equation model and tobit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demands of performing arts tend to be increased to people as they were younger, women, more earned and higher educated. In addition, the income is inelastic to demand. And after a certain age (peak age), the demand is increased.

Key Words : cultural performance, socio-economic determinants, two-equation model, tobit model

1. 서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의 공연관객수는 약 24백만명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30백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1]. 이러한 국민들의 공연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신규 공연시설의 건립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대규모 공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이 주

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산업의 상황에서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공연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아직 산업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되어 대형공연시설을 건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00석 이상 규모의 대형공연시설은 총 52개이며 이중 민간 공연시설은 2개에 불과하다. 또한 1,500석 이상의 시설 18개 중 민간 공연 시설은 1개에 불과하다.

이에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나라 전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4750)

*Corresponding Author : Joo-Suk Lee(Korea Maritime and Ocean Univ.)

Tel: +82-51-410-4727 email: leejoosuk@kmou.ac.kr

Received March 27, 2015

Revised (1st April 21, 2015, 2nd May 6, 2015)

Accepted May 7, 2015

Published May 31, 2015

체와 각 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연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에 전주에 국립무형문화유산원이 건립되었으며, 세종시에 세종시 아트센터, 부산시에 국립아트센터, 강릉시에 올림픽 아트센터 등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공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된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건립이후 수요 예측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실제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재정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대형공연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관련 수요분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공연시설의 수요예측 기법은 시계열(time-series)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시계열모형과 횡단면(cross-sectional) 자료를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함수로 나타내어 수요를 예측하는 횡단면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내에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개별적인 신규 공연시설에 대한 수요예측에는 부적절하다. 한편 횡단면분석의 경우 정량적인 수요의 예측이 어렵지만 문화공연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예술상품의 수요에 대한 기존의 해외 연구들은 주로 문화·예술 상품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상품이 사치재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또한 문화·예술상품의 이질성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3,4]. 이와 같이 기존의 해외 문헌들은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공연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한편 국내의 경우, 거래비용과 공연예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연예술의 가격과 수요는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정비례 관계로 나타났다[5]. 한편 소비자가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축적한 문화 소비자본(cultural consumption capital)과 문화·예술상품의 수요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규명한 연구도 존재한다[6]. 그러나 앞서 언급한 몇몇 연구를 제외

하면 국내의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일대일 개별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공연관람 및 공연관람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공연관람 경험이 없거나 공연관람 지출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공연관람이 없거나 지출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들의 판단은 합리적인 소비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연구에서는 영(0)의 관측 자료를 고려하기 위하여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과 유사한 two-equation 모형을 적용하였다[7,8]. 이에 본 연구에서는 two-equation 모형과 tobit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후 본 논문은 2장에서 연구방법론을 논하고 3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장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근 1년간 공연관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공연관람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들 역시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을 할 경우 불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0)의 관측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tobit 모형과 two-equation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Two-equation 모형은 관람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과 관람할 경우 관람 수준을 결정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두 수준의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석에 있어서 관람하지 않는 대상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고, 관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람 시 관람 횟수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Tobit 모형의 경우 종속변수가 제한적인 변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비음(positive)의 연속변수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에 적합한 모형이다. Tobit 모형은 일반적인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의 추정치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로그 형태의 two-equation 모형을 통해 관람여부와 관람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이의 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람지출금액과 관람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선형형태의 tobit 모형을 활용하여 관람여부와 관람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peak age 즉, 공연관람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연령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관람지출금액과 관람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two-equation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관람횟수의 경우 관람횟수가 대부분 5회 미만이고 0의 응답이 많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tobit모형을 활용하였다.

2.1 Two-equation 모형

Two equation모형은 최근 1년간 공연관람여부를 묘사하는 한 개의 변량과 최근 1년간 공연관람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지출 수준을 묘사하는 한 개의 변량이 결합된 이변량(bivariate) 함수로 구성된다. 만약 최근 1년간 공연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과 공연관람 지출비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정식 간의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최근 1년간 공연관람 여부와 공연관람 지출비용을 종속변수로 추정하는 단변량(univariate)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7,8,9].

Two equation모형에서는 각 응답자에 대해 y_{1i}^* 와 y_{2i}^* 를 각각 i 번째 응답자의 최근 1년간 공연관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확률과 응답한 i 번째 응답자의 조건부 공연관람 지출비용의 수준이라고 하면 최근 1년간 공연관람 여부를 결정하는 방정식과 공연관람 지출비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정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y_{1i}^* = x_{1i}'\beta_1 + u_{1i} \quad (1)$$

$$y_{2i}^* = x_{2i}'\beta_2 + u_{2i} \quad (2)$$

여기서 β_1 과 β_2 는 추정해야할 모수의 벡터, u_{1i} 과 u_{2i} 는 교란항이며 x_{1i} 과 x_{2i} 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명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그리고 여가시간의 측정수단으로 주당 근로시간과 서울거주여부를 활용하였다. 또한 y_{1i} 의 값은 관측되지

않으며 y_{1i}^* 이 0보다 큰지 아닌지만 관측된다. 따라서 y_{1i}^* 대신 다음 식(3)과 같은 y_{1i} 만이 관측된다.

$$y_{1i} = 1(y_{1i}^* > 0) \quad (3)$$

여기서 $1(\cdot)$ 은 값이 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취하는 인디케이터(indicator)함수이다. 즉, y_{1i} 는 i 번째 응답자가 최근 1년간 공연관람 경험이 있을 경우, 1이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또한 y_{1i} 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공연관람 지출비용인 y_{2i}^* 가 관측된다. 이때 우도 함수는 다음 식(4)와 같다.

$$L = \prod_{(i|y_{1i}=0)} \Pr(y_{1i}^* \leq 0) \times \prod_{(i|y_{1i}=1)} \Pr(y_{1i}^* > 0) \quad (4)$$

이제 (y_{1i}^*, y_{2i}^*) 가 이변량 정규분포 $BVN(x_{1i}\beta_1, x_{2i}\beta_2, \sigma_1^2, \sigma_2^2, \rho)$ 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 모형을 결합분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σ_1^2, σ_2^2 는 각각 y_{1i}^*, y_{2i}^* 한계분포(marginal distribution)의 표준편차와 이 둘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교란항의 상관계수 ρ 는 최근 1년간 공연관람 여부에 대한 응답여부의 결정과 공연관람 지출비용 수준의 결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sigma_1 = 1, \sigma_2^2 = \sigma$ 로 가정한다[10].

2.2 Tobit 모형

Tobit 모형의 경우, 최근 1년간 공연관람 지출비용 규모 혹은 최근 1년간 공연관람 경험 여부에 대해서 각각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식(5)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y_i^* = x_i'\beta + \epsilon_i \quad (5)$$

여기서 β 는 추정해야할 모수의 벡터, ϵ_i 는 교란항이며 x 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또한 y_i^* 의 값은 관측되지 않으며 y_i^* 가 0보다 큰지 아닌지만 관측된다. 따라서 y_i^* 대신 다음 식(6)과 같은 y_i 만이 관측된다.

$$y_i^* = \max(y_i, 0) \tag{6}$$

여기서 $\max(\cdot)$ 는 값이 y_i 와 0 중 큰 값을 취하는 함수이다. 즉, y_i 는 i 번째 응답자가 최근 1년간 공연관람 경험이 있을 경우 혹은 최근 1년간 공연관람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는 그 값을 나타내지만, 경험이 없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이때 우도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 = \prod_i \Pr(y_i^* \leq 0)^{1(y_i^* \leq 0)} \times \prod_i \Pr(y_i^* > 0)^{1(y_i^* > 0)} \tag{7}$$

이제 ϵ 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L 값을 최대화하는 β 와 σ 를 추정할 수 있다.

3. 수요특성분석결과

3.1 분석대상자들의 특성

Table 1. Stat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explanation for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Dummy for watching performance	1=yes 0=no	0.295	0.456
Annual expenditure for performance (1,000 won)	total respondents	27.508	73,761.7
	respondents who have ever watched performance	111.919	112.718
Annual number of watching performance	total respondents	0.519	1.010
	respondents who have ever watched performance	1.759	1.130
Gender of respondents	1=man 0=woman	0.503	0.500
Age	Age of respondents	45.062	9.090
Education level of respondents	1= under middle school 2= high school 3= over college	2.457	0.56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436.71	170.24
	Work	Workig hours for week	36.81
Dummy for living Seoul	1=yes 0=no	0.229	0.420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소득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이며,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市) 단위 이상 지역의 가구수 비중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총 1,00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최근 1년간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만 7천원을 공연 관람을 위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교육수준은 고졸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세후 소득 수준은 436.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3.2 공연관람에 대한 수요특성 분석결과

다음 Table 2는 Two equation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에 따르면, σ 와 ρ 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1년간 공연관람 여부와 최근 1년간 공연관람 비용 지출액 수준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최근 1년간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에 거주할수록 최근 1년간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공연관람 비용 지출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마지막으로 서울거주자일수록 공연관람 비용 지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연관람 비용 지출 결정식을 이용할 때에는 더미(dummy)변수로 표시되는 성별, 지불의사자, 서울거주자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 자연로그 함수를 취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모두 1,000명의 응답자들 중 공연 관람 경험이 있지만, 지출비용이 0인 49명의 응답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951명의 응답자들을 이용하여 계수들을 추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된 각각의 추정계수들은 모두 공연관람 비용 지출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한다.

Table 2에 따르면, 공연관람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0.4825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공연관람 비용이 소득에 비탄력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경우 1.3584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변화할 때, 공연관람 비용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수준이 변

화할 때보다, 교육수준이 변화할 때 공연관람 비용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Estimation results of two-equation model

The equation of dummy for watching performance		
variable	coefficient	t-value
constant	-0.1095	-0.10 [0.922]
Age	-1.4873	-5.55 **[0.000]
Education	0.8353	3.20 **[0.001]
Income	0.7211	4.95 **[0.000]
Gender	-0.3323	-2.82 **[0.005]
Work	-0.0002	-0.08 [0.932]
SEOUL	0.3838	3.55 **[0.000]
The equation of expenditure for watching performance		
variable	coefficient	t-value
constant	-0.9023	-0.76 [0.447]
Age	-0.6081	-1.65 [0.099]
Education	1.3584	3.80 **[0.000]
Income	0.4825	2.58 **[0.010]
Gender	-0.2319	-1.63 [0.102]
Work	0.0040	1.42 [0.155]
SEOUL	0.3803	3.04 **[0.002]
σ	0.9469	7.96 **[0.000]
ρ	0.7691	6.39 **[0.000]
Log -likelihood	-736.0319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tobit model

variable	the number of watching performance		the expenditure for watching performance	
	coefficient	t-value	coefficient	t-value
constant	36.9774	2.20 *[0.028]	3.5813	1.77 [0.077]
Gender	-4.9620	-2.59 **[0.009]	-0.7906	-3.43 **[0.001]
Age	-3.2285	-4.22 **[0.000]	-0.3460	-3.79 **[0.000]
Square of age	0.0305	3.59 **[0.000]	0.0033	3.28 **[0.001]
Education	6.6129	3.65 **[0.000]	1.0246	4.79 **[0.000]
Income	0.3226	5.92 **[0.000]	0.0029	4.62 **[0.000]
SEOUL	6.6058	3.79 **[0.000]	0.6755	3.18 **[0.001]
Work	-0.0027	-0.07 [0.947]	0.0026	0.53 [0.594]
σ	17.8281	19.60 **[0.000]	2.2893	21.00 **[0.000]
Log -likelihood	-1322.439		-966.9679	

한편 Table 3은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1년간 공연관람 횟수와 공연관람 비용 지출 수준에 대해서 추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 Table 3은 앞서 Table 2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일수록, 연

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최근 1년간 공연관람이 잦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최근 1년간 공연관람이 잦은 것을 알 수 있다. 공연관람비용 지출 수준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응답자 연령의 제곱항을 분석에 고려하였으며 두 변수 모두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공연관람횟수와 공연관람 비용 지출액 감소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에 대한 계수값을 2*가구주의 연령 제곱의 계수값으로 나눠주면 peak age 즉, 공연관람횟수와 공연관람 비용 지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계산할 수 있다. 아래 [Table 3]의 결과를 활용하면 52.93세부터 공연관람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52.42세부터 공연관람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일수록 관람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다만 자녀 양육이 끝나고 일정수준이상 소득수준이 있는 중년·노년층의 경우 문화공연관람수요가 증가함을 추측할 수 있다.

4.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문화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관람수요가 증가될 확률은 증가하지만 관람수요 지출이 소득에 대하여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향후 문화공연에 대한 관람수요의 증가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간하는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년 대비 관객증가율이 33.1%~25.0% 사이에서 연도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문화공연관람의 수요가 많지만 일정연령(peak age)이 지나면 오히려 문화공연관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공연시설 건설과 관련된 수요 예측에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문화공연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인 대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적거나 연령대가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다면 대상지역의 수요가 제한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문화공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에 정성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문화공연 관람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중 자체가 30% 미만으로 여전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이 문화공연 관람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고급 문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젊은 연령대뿐만 아니라 50대 초반 이후 중·노년 연령대에서도 문화공연 관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중·노년층을 위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문화공연의 수요는 관람료와 시설 등 보다는 공연 수준과 내용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공연 관람의 보다 엄밀한 수요분석을 위해서는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보다 세분화된 장르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survey of performing art. 2014.
- [2] Zieba, M., "Full-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German Public Theatr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33(2), 2009, 85-108.
DOI: <http://dx.doi.org/10.1007/s10824-009-9094-2>
- [3] Throsby, D. and Withers, G. A., *Economics for the Performing Arts*, Gregg Revivals, 1983.
- [4] Gray, H.P., "Cul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 Policy as an Intervening Variable,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3(3), 1996, 278-291.
DOI: <http://dx.doi.org/10.1006/jcec.1996.0065>
- [5] Lee C-J. and Kim, J-B., Demand for Classical Music

Concerts from Transaction Cost Perspectiv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Vol 17 (2), 2014, 3-28.

- [6] Sung, J-H. A Study of the Effect of Art Specific Human Capital on the Demand for Artistic-Cultural Good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25 (1), 2012, 657-677)
- [7] Bhat, C. R., "Imputing as a Continuous Income Variable from Grouped and Missing Income Observations", *Economics Letter*, Vol. 46, 1994, pp. 311-319.
DOI: [http://dx.doi.org/10.1016/0165-1765\(94\)90151-1](http://dx.doi.org/10.1016/0165-1765(94)90151-1)
- [8] Deaton, A.,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Microeconomic Analysis for Development Polic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DOI: <http://dx.doi.org/10.1596/0-8018-5254-4>
- [9] Heckman, J.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53-161, 1979.
- [10] Amemiya, T. Tobit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etrics*, 24, 3-61, 1984.

이 주 석(Joo-Suk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관심분야>

응용미시계량, 환경 및 지역도시 경제학

곽 승 준(Seung-Jun Kwak)

[정회원]



- 1984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1992년 8월 : 밴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심분야>

응용미시계량, 환경 및 지역도시 경제학

조 승 국(Seung-Kuk Cho)

[정회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1996년 6월 :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환경경제학, 경제성 분석